임란 일어난 혼란의 시대, 주어진 운명에 맞서 싸워라

시네필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18〉 '전, 란'

넷플릭스 개봉…글로벌 차트 TOP3 진입 국내 1위 기록
김상만 감독, 차승원·강동원·박정민 등 스타배우 총출동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전, 란'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선조 역을 맡은 배우 차승원이 광기를 표출하는 모습(왼쪽)과 검투 씬.

화마 속 궁궐은 봉고파직당한 양반의 풀린 머리채로 다가온다. 궁(宮)을 받드는 게 선비의 갓머리(宀)가 아니라 백성의 무수한 등뼈(呂)는 아닐지.

불타는 경복궁과 육조거리를 뒤로한 선조를 보니 떠오르는 상념들이다. '송와잡설' 중 임란 기록에 따르면 백성을 외면하고 피난길에 오른 데 분개한 이들이 불씨를 지폈다고 한다.

그 불길은 일천즉천, 양안과 호적 등 허울뿐인 조선의 제도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다. 소수 특권층은 귀천의 기준을 재단했고 인간 존엄마저 훼손했다. 한 시대가 얼마나 많은 상실과 절망, 야만을 감내했는지 가늠조차 어렵다.

이런 시퀀스를 담은 영화 제목으로 '전, 란'이 적절해 보인다. '전란'이 아니라 '전'과 '란'의 병렬이다. 임진왜란과 민중의 난을 표상하는 두 단어는 둘이자 하나, 역사적 비극의 병치은유다. 외침과 내부 균열이 교호적으로 16세기 조선사를 이뤘기 때문이리라.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김상만 작 '전, 란'은 글로벌 차트 TOP3에 진입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 가도를 달렸다. 주연 배우로 차승원, 강동원, 박정민 등 스타 배우들이 총출동해 작품성 측면에서도 큰 기대를 모았다.

작중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외아들 종려(박정민 분)와 매맞이 몸종 천영(강동원)은 서사를 끌고 나가는 주역들이다. 주변인을 페이드 아웃하고 두 사람의 삶을 포커싱해 몰입감을 준다.

동년배인 둘은 성장 과정에서 신분제의 한계를 초월해 교유한다. 무예에 재능이 있던 천영은 종려 대신 무과에 응시해 장원 급제를 안겨주고, 종려는 그를 인간적으로 대우한다. 실제로 선조 때 대궐 안에서 보는 정시(庭試)에서 응시자를 쫓아 온 하인이 답안을 대필해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허나 두 사람은 전란이 빚은 오해로 평행선상을 달린다.

임란이 발발하고 민중이 봉기하자 선조(차승원)를 보필하던 종려는 '노비들이 주인을 죽이고 집을 불태운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천영은 종려와 의리를 지키고 그의 식솔을 지키려 하나, 항간의 왜곡된 소문으로 종려는 격노한다.

메인 캐릭터의 감정선이 모두 설득력 있는 까닭에, 관객들은 선악 구분에 있어 판단 중지(Epoche)에 빠진다. 마치 영화 '장고'나 '석양의 무법자'처럼 60~70년대 유행한 스파게티 웨스턴 스타일을 오마주, 말미의 검투씬에서는 선악 무화 속에서 인물들의 분투만을 접사로 보여준다.

막역했던 주인공들의 운명을 뒤튼 '빌런(악역)'이 기실 통치구조와 신분제 한계였다는 점에서 영화는 조선의 '정치성 과잉'을 사유케 한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정치성 위에 놓인다. 니체는 사회에 지배와 피지배 논리가 실존하며, 삶이 지배자의 논리에 맞춰져야 정의와 선이 살아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런 보수적 철학사를 톺아보더라도 영화에 드리운 조선의 정치성은 '과했'다. 특권층의 지배구조 양산을 위해 피지배층의 고통을 합리화한 점도 성리학의 폐단으로 보인다. 이런 연유에서 천영이 '정의 검신'이 돼 노도처럼 일어난 것. 그의 모습은 인간 도덕 적행의 기준을 실재가 아닌 관념과 사변, 추상에 끼워 맞춘 시대착오의 페이소스다.

천자수모법, 노비종모법, 양천교혼 등 그 형태도 다양했던 악순환의 굴레는 조선 중엽대 와서 끊어졌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기득권을 놓고 '지배구조'를 존속하려는 이들의 실존은 영화에 투사된 통시적 비극으로 읽힌다.

과감한 플래시백을 통해 과거와 현재 시점을 교차 전개한 점이나 스테레오타입을 벗어나 개성 있는 선조를 재창조한 점은 작품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 판소리와 창, 락을 오가는 'Uprising', 'Action', 'Funeral' 등 국악 OST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다만 대규모 전쟁씬보다 2~3인 결투에 주목한 터라 스케일의 아쉬움도 언급된다. 호쾌한 검술 액션 활극과 디테일한 감정선 묘사를 버무려 한계를 극복하려는 흔적도 보이나, 300억 제작비에서 임란이 주는 왜군의 '압도적 공포'를 기대했던 관객이라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전(戰), 쟁(爭), 반(反), 란(亂)으로 구성된 총 네 개 장막에서 2~3장에 등장하는 시민군 서사는 소폭 줄여도 좋겠다. 쟁투 이후의 소동극 씬 또한 마찬가지다. 소규모 전투 시퀀스를 지향하는 내내 전쟁의 '폭발력'이 부족하기에, 주역 외 개인 서사의 결가지를 과감히 쳐도 좋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어린이가 그린 우리 문화유산들

국립광주박물관, 12월 8일까지 우수작품전

박서연 작 '당포전양승첩도의 해전 이야기'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이 돋보이는 그림 전시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 지난 8월 열린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의 수상작을 전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전시한다. 박물관 누리집에서 리플릿을 다운받아 온라인 감상도 가능하다.

오는 12월 8일까지 펼치는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우수작품전'에는 모두 66명의 수상작을 선보인다. 으뜸상 3명, 버금상 6명 및 솜씨상 20명, 꿈나무상 37명 등이다.

최고상인 으뜸상 광주동초등 4학년 박서연의 '당포전양승첩도의 해전 이야기'를 비롯해 치평초등 2학년 문가윤의 '찻그릇 사자 모양 연적', 계림초등 1학년 전연재의 '분청사기 물고기 무늬 편병'이 전시되고 있다.

원래 '당포전양승첩도'는 정유재란 당시 당포해전의 승리를 기념해 국가에서 하사한 작품이다. 이를 모티브로 한 박서연 학생의 작품은 초등학생의 상상력과 역사에 대한 관심 등이 투영돼 의미가 있다. '찻그릇 사자 모양 연적'은 어린이다운 활달한 상상과 맑은 동심을 표현한 이색적인 작품이다. 전연재의 '분청사기 물고기 무늬 편병'은 역사에서 모티브를 얻어 의미의 중요성을 작품에 투영했다.

심사위원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며 "대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뛰어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고 평했다.

한편 전시 기간 현장에서 전시작품에 대한 인기투표가 진행된다.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5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상식이 26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흥선 관장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는 그림을 그리는 차원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박물관은 역사와 교육을 접목한 다채로운 어린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전통·현대 아우르는 선율 울려퍼진다

국립남도국악원, 9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초청 공연

예향 광주의 국악관현악 선율이 진도에서 울려 퍼진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민요 협연, 아쟁산조, 장새납 협주곡 등 여덟 작품이 남도 예술의 진수를 선사한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만경창파 푸른 물에'를 오는 9일 오후 3시 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에서 펼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을 초청, 광주를 넘어 '국악관현악'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공연은 경쾌한 속도감이 특징적인 이준호 곡 '축제'로 막을 올린다. 이어 빠른 시간의 흐름을 묘사한 '아름다운 인생2', 인간극장에 '민요자매'로 출연해 이목을 끌었던 이지원·이송연의 민요 협연 '태평가'가 울려 퍼진다. 노동요 성격을 보이는 '뱃노래'와 '자진뱃노래'도 우리 신명과 흥을 더한다.

장중하면서 화려한 박종선류 아쟁산주는 협주곡으로 편곡해 '2024 금당'이라는 주제로 선보인다. 연주에 김선제 아쟁 명인.

이 밖에도 장새납 협주곡 '넬라 판타지', 재일동포에 대한 그리움을 염원한 '열풍'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경기민요 '뱃노래'를 테마로 한 국악관현악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는 웅장한 사운드를 매개로 출항하는 배를 연상시킨다.

박승희 지휘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창단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30년을 꿈꾸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광주, 호남권을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K-국악'의 선봉에 서고 싶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동행'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동행'이 펼쳐졌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동행'을 7일 오전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60대 이상에게 인기 있는 길놀이, 풍물놀이(타악그룹 얼쑤)와 한국무용(바오무용단), 국악트롯(이슬비), 트롯(전자국악단 가락) 등을 선보였다.

광주문화재단의 메세나사업은 모두 3개의 기부로 구성돼 있다. 소액기부는 월 1만원을 한달 1회, 1만명의 1만원이 모여 예술로 풍요로운 문화광주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지정 기부, 재단의 기금 이자로 창작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사용되는 일반기부가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무등육아원에서 '제1회 찾아가는 문화동행' 공연이 펼쳐졌다. 동구 관내 4개소(무등육아원, 광주영신원, 사회복지법인 일맥원, 광주성빈여사)의 유아 및 초등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방송댄스, 마술, 캐릭터 탈 공연 등을 펼친 바 있다.

노희용 문화재단 대표는 "이번 '문화동행'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특히 메세나를 통해 '찾아가는 문화동행'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한빛원자력본부와 함께하는
전남광역푸드뱅크에 저소득층의 끼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기부해 주세요.
푸드뱅크는...
기업 등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무상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입니다.
061-283-1477 www.jncsw.or.kr/7-1.htm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전남광역푸드뱅크
햇살나눔 푸드마켓 1호점